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주일(5월 6일)

제4차 성찬식 및 가족 연합예배(2·3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것을 찾으라"(골 3:1)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온 땅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쫓겨난 삶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피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5월 6일)에 제4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히 2·3부 예배는 가족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장년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과 예배 순서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누셔서 온 가족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중직자 가정은 가급적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라"(엡 2:16)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

24개 교구를 한 믿음으로 섬길 청지기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새롭게 확대 개편된 24개 교구를 한 믿음으로 섬길 모든 청지기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24개 교구는 "오직 믿음"(롬 1:17)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교구를 세우는 일은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교역자들의 몫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비록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의 교구, 지역,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

*24개 교구의 모든 일꾼 임단은 본지 5~8면 참조

5월 교회 일정

- 6일(주) 제4차 성찬식(9부~5부 예배 시), 가족 연합예배(2·3부), CMTC 추가 훈련(선양예배 후)
- 9일(수) 제1·2교구위원회 헌신예배(수요 2부 예배 시), 정기강회(수요 2부 예배 후)
- 13일(주) CMTC 추가 훈련(찬양예배 후)
- 16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여전도회)
- 19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오후 2:00, 남전도회)
- 20일(주) 새생명 전도주일(제1교구위원회)
- 22일(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기도회(저녁 7:30, 갈릴리움)
- 27일(주) 성령강림 주일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돌리라(금요일양형집)

경건의 훈련

자신을 살 곧 천국의 삶을 약속한다. 경건한 삶에서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7:14)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는 우리는 시련을 당한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시다."(요일 4:17)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구별한다는 뜻이다.(요 17:15~17) 예수님은 진리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면 결코 영적으로 구별될 수도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다.(딤후 1:4,15; 딤후 6:3~5)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성경 읽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의 65%가 "성경은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딤후 3:16,17; 딤후 4:1,2)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할까? 자신은 성경과 상관 없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분명히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요 17:17~19)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보자. 권위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쑥하고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성령의 열매와 정 반대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는 것이 엄청난 위선과 외식과 권위는 아닌가?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자신이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님들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골 2:20~23)

우리는, 초등학교를 잘 졸업한 학생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기쁨과 감격에 찬 간증을 듣고 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영성훈련은 우리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변화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사역지에서 전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삶이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존심, 자아를 찾지 않았다. 영혼 사랑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쏟아 부었다. 진정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귀하고 깨끗한 삶이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감정도, 인격이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의 어설픈 간증과 선포 앞에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체휼하지 않았는가! 그 누가 부인할 수 있던 말인가! 그 비결은 우리는 구별되었다. 나도 아니었다. 바로 구별된 삶이었다. 이것은 비밀이고 보화였다. 기적이었다. 은총! 바로 그것이었다.

법사에 유익한 경건, 현재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 제자는 훈련을 받으며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가금의 찾아와서 방도했던 사람이 늘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었다.(요 8:31,32)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믿고 세례 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게 된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진리가 무엇을 주는가? 그것은 진정한 자유이다!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참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기초한 경건의 훈련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 아멘.

REMEMBER

“For you have been called for this purpose, since Christ also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for you to follow in His steps.”

(1 Peter 2:21)

We often think lightly about the blessings we receive from God through Jesus. Do you realize that Jesus was crucified, nailed to a cross, for your sins? He suffered death for you, but you do not consider it much. He paid your debts with His blood, but you forget. Many of today's Christians carelessly say that Jesus saves them. They do not put much emphasis on what He saves them from. He saves you from eternal death, freeing you from the fear of hell. He saves you from the bondages of sin. No believer should take the blessings bought with Jesus' blood superficially. It is a serious matter that calls for in depth reflection. What should you be remembering?

First priority of remembrance is the Lord's Supper. There are few things in the New Testament that you are asked to remember, and this is one of them. 1 Corinthians 11:23&24 say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is command was not just for the primitive church but for all Christians until Christ's return. Some people think that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takes away their sins because Jesus' body is offered again and again, but this is simply not true. The Lord's Supper is a memorial of Christ's death. His body was sacrificed once and for all sin. The Lord's Supper helps us to remember the seriousness of sin, the greatness of God's love, and the cost of salvation.

Baptism is something you need to remember. Romans 6:3&4 says, "Or do you not know that all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 have been baptized into His death? Therefore we have been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so tha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so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Baptism is a memorial to Christ's burial and resurrection. When you are baptized, you are following after Jesus Christ,

"After being baptized, Jesus came up immediately from the water;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as a dove and lighting on Him, and behold, a voice out of the heavens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pleased.'" (Mt. 3:16&17) Baptism is a form of obedience because it is a command by Jesu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t. 28:19) It is public identification with Jesus,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2:41) Have you been baptized? If so, is your dedication to Jesus growing stronger day by day?

Living a Christ-like life is something you need to remember. It is a memorial to the lordship of Jesus. Sometimes we are the only Bibles that others will read. Can someone read God's Word in you? You must remember to let every word and deed remind people of Jesus. This declares the lordship of Christ in you. Honestly, who actually rules your life? Is it Jesus or is it the devil? Non-believers are always watching you, trying to read your actions. Somehow people always remember your words and deeds. When people look at you now, what will they remember? Will they remember Jesus?

Please remember the Lord's Supper, Baptism, and to live a Christ-like life. If you really remember Jesus Christ in this way, if you really think about His Supper, Baptism, and Life, you will know the truth,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n. 8:32) I know most of you here today remember your grocery needs, special "to do" lists, and so on but do you remember the truth? You are so good at remembering stupid things, but not the important things. Wake-up! You need to be more sensitive to spiritual things, the things that set you free, "So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n. 8:36) Come now and receive the One who died for you. Surrender completely to Him. Remember Him as you join His Table. Amen. 

다음 주일 설교

기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1)



김석관 목사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이 여러분께는 그다지 큰 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셨건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축복들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23,24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명령은 초대 교회에서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계속해서 취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구원의 대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세례를 기억하라

세례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로마서 6:3,4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예

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세례는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갑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유일한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까요?

반드시 주의 만찬과 세례,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주의 만찬과 세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야 할 식료품과 해야 할 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억해야 할 참 진리는 잊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일들은 쉽게 기억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 이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4. 25.)

성령으로 살면 (갈라디아서 5:25, 26)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다. 극한 십자가의 수난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 갈 것이다. 앞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갈 5:24,25)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는다.(갈 5:26) 대신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신령한 예배와 경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요 4:23,24)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포장한다. 자신의 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착각한다. 외식으로 가득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진심으로 정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자를 찾으신다. 바로 성령의 사람을 찾으신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제 1:10,11) 우리의 삶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지식 그리고 경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자. 세상으로 돌든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길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 사도 요한은 놀라운 일을 목격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니 하늘에 보좌를 배웠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계 4:1,2)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이다. 이 놀라운 하늘과 미래의 일을 바울도 보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4년 전에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들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을 때 셋째 하늘(삼위)에 이끌려 갔던 놀라운 경험을 쓰고 있다.(고후 12:2~4) 당시의 바울은 돌에 온 몸을 맞아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는 고통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었다. 열매마로 가던 두 명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증거하였다.(눅 24:35)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마른 뼈들에 들어가 군대를 이루었다.(겔 37:3,4,9,10)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니 하나님 나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시 46:1~3)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신다.(롬 8:26)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성령님이 거하심을 간증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심을 간증한다.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성령만이 죄로 물들어 소망 없는 우리를 거룩케 하신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다.(고전 3:16,17)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행 6:3)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다.(고전 2:4)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엡 6:18; 유 :20)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거하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성령님의 거하심을 간증하게 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정(passions)과 욕심(desires)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세속간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영화로운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 내시고 밝게 하여 줄소사."(한 176장) 아멘.

연약한 우리, 강하신 예수님!

중증 1부 3점

- ※ 정말로 굶주린 영혼들, 그리고 육체를 많이 보았다. 사역하면서 돕고 배고팠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이기환)
- ※ 주님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여호와 미래의 선교였다. (유호준 고사)
- ※ 한 여 자 아이를 전도하는데, 복음을 들은 그 아이가 열정기도를 따라하지 않았다. 이 때 함께 기도 한 신자님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러자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열정기도를 따라하였다. 성령님이 살 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었다. (코재성)
- ※ 너무 뒤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전부 다 짜증나고 귀찮았다. 도 깨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다가 나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계속 하다가 보니 예수님께서는 두서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현태)
- ※ 축복전도와 노방전도를 많이 하였다. 학교에 가서도 전도를 하였다.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의진)

- ※ 비행기에서 내려지마자 더운 열기가 느껴졌다. 비행기 많았지만 아침밥을 먹고 사역지로 이동하여 다음 날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다. 오전, 점심 식사, 오후 사역이었다. 워생 상태가 정말로 취약했다. 하지만 복음은 더 취약했다. 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고구반)
- ※ 집집마다 불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팀은 당대해 전했다. 사람들은 전도지 비기를 위하여 왔다. 사역에서 늘고 있던 이들은 전도지를 받지마자 찾아버렸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열정하는 사람들을 도반하게 하셨다. (김하연)
- ※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그런지 30회 이상 영성훈련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복음의 도마로 사용하셨다. (이홍순 고사)
- ※ 쓰레기가 바다에 휩쓸고, 사람들은 맨발에 목욕도 안 해서 더운다고, 이도 있었다. 너무 더러웠다. 밥은 맛이 없었다. 식당은 썩은 냄새가 풍기고, 쓰레기를 먹으려고 감자지들이 돌아다녔다. 선교하게 된 것일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불쌍해질 것 같아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다. (심하연)

현재 지역 중안 선교팀 (3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정영미 · 전혜연 (매미바)

기 간	팀	팀 장
4월 23일(월) ~ 5월 2일(수)	7·8·24교구	장길남
4월 27일(금) ~ 5월 5일(토)	24교구	이달욱

다음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30일(월) ~ 5월 8일(화)	5교구	김옥근
5월 1일(화) ~ 5월 9일(수)	24교구	정재성

24개 교육 일문

제 1 교구위원회

위원장: 김은호 지 도: 김익환
서 기: 안석현 회 계: 고재승

1 교구

교구장: 김신국 지 도: 이재영 부지도: 김정연

남간사: 김 옥 여간사: 고윤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충현1	이승득	최은희	김정찬	신명주	권미예	
	충현2	이승득	최은희	김정찬	최송자	장자윤	
	충현3	이승득	최선자	김정찬	김경순		
	충현4	이승득	최선자	김정찬	송은하	유외숙	
02	목양1	윤선한	강신순	김진석	임윤자	이인순	
	목양2	윤선한	강신순	김진석	신동욱	함희정	
	목양3	윤선한	안경자	김진석	엄유진		
	목양4	윤선한	안경자	김진석	김승희	인지주	
03	언주1	양한원	강옥련	이영환	이순희	박경희	
	언주2	양한원	강옥련	이영환	강 옥	김근아	
	언주3	양한원	이윤리	이영환	곽노경		
04	역삼1	정창원	이현숙	송현덕	이경순		
	역삼2	정창원	전옥순	송현덕	남주옥	신명자	
	역삼3	정창원	전옥순	송현덕	오정혜		
05	역삼4	구원철	이숙희	이재관	고윤희	최자영	
	역삼5	구원철	이숙희	이재관	박경희	김은자	
	역삼6	구원철	전준옥	이재관	이수진		

2 교구

교구장: 정창수 지 도: 안치원 부지도: 강호숙

남간사: 김승환 여간사: 구명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국기1	최세진	조연숙	최규태	서해정	김정수	
	국기2	최세진	김은희	최규태	문신희	김영아	
	국기3	최세진	신경자	최규태	정희선	김상희	
02	국기4	이보신	유성자	최규태	이명금		
	국기5	이보신	정옥희	최규태	윤효순	김하실	
	국기6	이보신	김국자	최규태	김경숙	이인숙	
03	한서1	김대용	정복득	전승기	정복득	정경옥	
	한서2	김대용	홍경선	전승기	태일희	강종애	
	한서3	김대용	황진순	전승기	백인숙		
	한서4	김대용	이근덕	전승기	박경희		
04	태백1	홍순길	양삼순	박숙선	강준자	최금중	
	태백2	홍순길	양선자	박숙선	황경분	김용자	
	태백3	홍순길	김희수	박숙선	안분조		
05	태백4	전삼진	김성아	김성택	오승민	유 향	
	태백5	전삼진	노경자	김성택	김미혜	양영숙	정현숙
06	진달래1	박종철	김지현	최광원	김장자		
	진달래2	박종철	박태순	최광원	김향선	임금숙	
07	영동1	허만선	정문태	김세종	오영하	최문정	
	영동2	허만선	이경자	김세종	장금자	최순현	
08	개나리1	한현석	이연숙	권혁민	안화숙	임일영	
	개나리2	한현석	성명선	권혁민	부경란		
	개나리3	한현석	김계희	장상길	윤일자		
	개나리4	한현석	한현석	장상길	구명숙	임숙남	
	성보	한현석	김예자	장상길	김지은		

3 교구

교구장: 구재환 지 도: 김익환 부지도: 김정준

남간사: 정인옥 여간사: 이정미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현대1	신전수	안정희	김 광	김정은		
	현대2	신전수	박영숙	김 광	이순민	심인주	
	한양1	신전수	윤정희	김 광	박영숙		
	한양2	신전수	윤정희	김 광	안준남	김미영	
02	창당1	정인옥	김영아	김 광	노희래	장문자	
	창당2	정인옥	정명실	김 광	박영미	차혜숙	
	창당3	정인옥	안정자	김 광	오신희		
03	AID	이부성	구자남	최한태	이혜경		
	삼성1	이부성	심효숙	최한태	이명희		
	삼성2	이부성	이한복	최한태	전순희	오현정	
	삼익	이부성	주순희	최한태	시경희	문 회	
04	해정	이영환	김순배	이종훈	이명옥		
	선동1	이영환	김성자	이종훈	정순자		
	선동2	이영환	최수자	이종훈	차영선	최명희	
05	상곡1	김승규	이옥순	나오현	이희영	김정순	
	상곡2	김승규	이수자	나오현	이정미	이정자	
	상곡3	김승규	이순자	나오현	김영란	이지혜	

4 교구

교구장: 안석현 지 도: 장 훈 부지도: 이복순B

남간사: 홍선기 여간사: 함윤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럭키1	박남주	김진자	김희동	이봉선	서수정	
	럭키2	박남주	김영구	이인관	강태연	이성미	이명숙
	럭키삼익	박남주	김보옥	이재철	한순옥	최삼숙	
02	동신우성	이준식	정창자	신동수	이정희	김미연	
	도곡점	이준식	반연숙	박병덕	강순옥		
	한신	이준식	김중자	박해근	이정애	유영숙	
03	대림	문영귀	김승옥	윤종국	박영연	유은희	
	타워펠리스	문영귀	김명희	권석정	박찬식	김영복	
	백록	문영귀	황창자	권영돈	김영락		
	삼호이마트	문영귀	임현숙	권영돈	김혜정		
04	시영	김윤환	함윤자	임대혁	최원혜	임학신	
	포이1	김윤환	함윤자	임대혁	강은미	김미정	
	포이2	김윤환	남영순	정봉성	권미숙	공선희	
	포이3	김윤환	남영순	정봉성	권미숙	한준남	
05	경남우성	박봉선	김 순	김영모	김희선		
	개포현대	박봉선	백영희	김영모	이희희	정연희	
	개포1	박봉선	이순자	노규식	강여정		
	개포2	장태동	유현순	장재성	문성애	박영익	
	개포3	장태동	유현순	장진근	이희희	김경남	
	개포4	장태동	임태수	장진근	조영희		
07	개포5	박봉순	홍은기	황순선	정성임		
	개포6	박봉순	하두연	황순선	김영숙	임영선	
	개포7	박봉순	김장자	김경혜	김미리	변인원	
08	관리	홍선기	함윤자				

5 교구

교구장: 장기수 지 도: 하종철 부지도: 이옥주

남간사: 최병일 여간사: 오정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대치1	김옥련	이득혜	김영연	박희수	유정희	
	대치2	김옥련	정경희	김영연	차옥진		
	대치3	이정태	노순선	이삼연	이연희		
	대치4	이정태	김예순	이삼연	한기남	김은애	
	대치5	이정태	김순자	이삼연	김일순	신우희	
03	창실1	최종순	박정란	황재현	박석환		
	창실2	최종순	한기희	황재현	최희란	박경숙	
	은마1	김성호	이혜정	이도현	이미애		
	은마2	김성호	오정림	이도현	이정숙		
	쌍용우성	김성호	김정림	이도현	박석자		
05	선정우성	장기수	정은희	노수식	정재선	김미정	

미도1	장기락	김호순	노수식	주혜연	김숙자		
미도2	장기락	김호순	노수식	이옥경			
06	대치대정	김달현	안정자	이상정	강옥옥	김혜정	
	우성한신	김달현	김영혜	이상정	김진선	송혜자	
	쌍곡우성	김달현	서정자	이상정	박은하		
07	일원1	박옥련	함자옥	최동식	노승연		김은주
	일원2	박옥련	정연희	최동식	소영민	이정화	
	일원도시	박옥련	김희자	최동식	조옥련		
08	목련	박광식	김영숙	박관수	공성연	이후자	조경순
	수서1	박광식	안순옥	박관수	박말순		
	수서2	박광식	이혜주	박관수	이혜주		
	수서3	박광식	곽재자	박관수	임복래	오영숙	

6 교구

교구장: 김규석 지 도: 최석득 부지도: 김말자

남간사: 오준성 여간사: 권연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우성1	김영주	황선혜	이규정	김두순	김양숙	
	우성2	김영주	최희경	이규정	김정임	장혜선	
	선수촌	김영주	홍기환	이규정	정옥임		
02	잠본1	박광식	권연숙	송영성	정옥선		
	잠본2	박광식	권연숙	송영성	양옥자		
	잠본3	박광식	윤자옥	김영성	김진미		
03	잠본1	이세영	김연숙	김영진	조연익	김순자	
	잠본2	이세영	박정순	김현근	오은혜	이민선	
	잠본3	이세영	김윤식	김현근	허준희	윤금자	
04	잠실1	지규성	김연철	변인식	윤숙희		
	잠실2	지규성	윤수현	변인식	신영숙	이광실	
	잠실3	지규성	오경희	변인식	황치희	위갑순	
05	석촌1	이병두	심금숙	김영길	김유자	신순자	
	석촌2	이병두	이수자	김영길	이미정	박혜자	
	가락	이병두	김영숙	이기봉	이희자	이종심	
06	해미리1	김현철	박영옥	이기봉	이희자	남혜숙	
	해미리2	김현철	박영옥	이기봉	이희자	남혜숙	
	가락우성	김현철	이혜숙	이기봉	고희란	최희숙	
07	가락우성	안상직	김준자	송낙산	이희숙	최종미	
	거여	안상직	김준자	송낙산	김명숙		
	문정1	안상직	고영혜	송낙산	안정희		
	문정2	안상직	고영혜	송낙산	정원희		
08	관리		권연숙				

7 교구

교구장: 고재승 지 도: 이희식 부지도: 이혜숙

남간사: 이연범 여간사: 김형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풍납1	박용기	여선자	박명호	김지선	이인순	
	풍납2	박용기	맹정숙	박명호	조인희	박영숙	
	풍납3	박용기	박영임	박명호	강미영	권영남	
	풍납4	박용기	이희주	박명호	정화숙	이수녀	
02	잠미1	최태환	유선덕	신유환	황정미	김석영	
	잠미2	최태환	김진숙	신유환	김경숙	최훈자	
	진주	최태환	김숙자	신유환	황정숙	김수연	
03	상내1	장길남	이규숙	박영기	이현숙		김윤희
	상내2	장길남	이계문	박영기	임남빈		
	상내3	장길남	정영숙	박영기	최희자	김희남	
	울림파1	장길남	장남희	박영기	김명숙		박정자
	울림파2	장길남	조준옥	박영기	김경희		
04	송파	박석산	구영자	박석산	김인덕	조옥자	
	송파방이	박석산	이금순	박석산	김현숙		
	방이	박석산	이예자	박석산	정남주		
05	한양상정	송한천	오말리	이근우	박남용	송선분	
	삼익대림	송한천	양명옥	이근우	이명숙	강순금	

24개 교육 일괄

06	오금	한용택	정호진	한종남	이순기
	마천	한용택	김은심	한종남	이경희
	상아	한용택	이화자	한종남	이미랑

8 교육

교구장: 송두섭 지 도: 임현덕 부지도: 최문실
남간사: 이재호 여간사: 오영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둔촌1	이기욱	황명숙	조원일	이미숙	김승희	
	둔촌2	이기욱	차명선	조원일	금옥연	송재철	
	둔촌3	이기욱	장영제	조원일	이강혜	이미자	
02	길동	조중민	홍양래	김 근	장숙희		
	천호1	조중민	배귀녀	김 근	황은선	김순옥	
	천호2	조중민	김근자	김 근	조숙진	강유경	
	천호3	조중민	김근자	김 근	김종수	김재순	
03	임사1	박영섭	박재순	최동삼	이양현	방우리	
	임사2	박영섭	이종영	최동삼	이수연	주정순	
	임사3	박영섭	윤용자	최동삼	김미자	민준주	
04	명일	남용철	이경자	이경환	서미미	최미정	
	하남	남용철	조중선	이경환	김지현		
05	고덕1	윤병식	민행남	이정진	지숙자	안현정	
	고덕2	윤병식	민행남	이정진	채명혜	이명화	
06	광주1	이인광	신영희	장병문	설분식	최 진	
	광주2	이인광	신영희	장병문	김용원	공준향	
	광주3	이인광	홍현숙	장병문	최정현	심진희	
	광주4	이인광	최영실	장병문	김지영	최정현	

9 교육

교구장: 박철구 지 도: 김준희 부지도: 옥미자
남간사: 김윤필 여간사: 최한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군자송정	김종홍	한금자	박준배	지은자		
	자양1	김종홍	박차화	박준배	박영순		
	자양2	김종홍	구정희	박준배	오준분		
	자양3	김종홍	공정자	박준배	송영자	유종희	
02	노유	강종선	이소규	김익태	도수자		
	성수1	강종선	이복연	김익태	신호화	강은영	
	성수화양	강종선	유정자	김익태	김강미		
03	홍익	이정훈	유병순	전귀환	박기자	유계순	
	백산	이정훈	김봉재	전귀환	차봉순	김경애	
	마장	이정훈	김명주	전귀환	박미숙	유계순	
	왕십리	이정훈	김순연	전귀환	유주옥		
04	행랑1	전성숙	박운석	박준근	손명민		
	행랑2	전성숙	유정자	박준근	유은경		
	웅봉1	전성숙	이옥목	박준근	황옥영		
	웅봉2	전성숙	서귀순	박준근	정신숙		
05	금호1	남용순	연화숙	조영구	김성자		
	금호2	남용순	김효자	조영구	김남희		
	금호3	남용순	김순연	조영구	이정혜		
06	옥수1	이덕규	이승연	정효식	안선희		
	옥수2	이덕규	최상진	정효식	김정은		
	옥수3	이덕규	양신자	정효식	최나희		

10 교육

교구장: 정승규 지 도: 윤수일 부지도: 전은희
남간사: 김상철 여간사: 박은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중곡1	김해길	함화자	송문식	최선명	강정희	
	중곡2	김해길	왕진숙	송문식	박순현	이영희	
	중곡3	김해길	백희숙	송문식	황호선		

02	구외1	추병장	김월분	박상남	오영진	유봉남	
	구외2	추병장	김숙희	박상남	장순태	신정숙	
	구외3	추병장	김영자	박상남	박은주	고성숙	
03	위귀원	정철식	조은선	변창대	김수남	최명숙	
	현대	정철식	최경순	변창대	박학숙	조복선	
04	강변우성	정철식	김영미	변창대	이인숙	고성숙	
	면목1	이창희	이명희	정영태	한영란		
	면목2	이창희	이혜순	정영태	이숙연		
	면목3	이창희	윤희순	정영태	남현숙		
05	망우	김종성	이영숙	신현철	이덕심		
	교문	김종성	김순남	신현철	이영숙	강경남	
	수택	김종성	이분숙	신현철	김현옥		
06	노동	김연태	박현숙	최영인	백나희		
	덕소1	김연태	이승선	최영인	김명희		
	덕소2	김연태	장예화	최영인	강혜정		
07	마석	정문호	정구자	이상실	박귀자		
	호평	정문호	강동화	이상실	박귀자		
	장현	정문호	배옥순	이상실	이용순		
	청학	정문호	김연옥	이상실	성유경		

11 교육

교구장: 박익환 지 도: 강명구 부지도: 윤인숙
남간사: 이양호 여간사: 오광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동두천	김현배	정경희	전현근	조성옥		
	포천	김현배	정경희	전현근	박대선		
	의정부1	김현배	문경희	전현근	황이지		
	의정부2	김현배	이강자	전현근	오광순		
	의정부3	김현배	양영자	전현근	유유순	임혜순	
02	방학	강영환	정순이	신현옥	김수영		
	쌍문1	장영환	김진연	신현옥	오은경		
	쌍문2	장영환	김경순	신현옥	임순록	박향란	
	쌍문3	장영환	이현주	신현옥	최지숙		
03	상계1	김영록	박효순	박성근	김재자		
	상계2	김영록	김복수	박성근	김연숙		
	상계3	김영록	오명준	박성근	김재순		
	상계4	김영록	박이희	박성근	정의숙		
04	상계5	조영철	박재임	주낙진	정영자		
	창동1	조영철	남은희	주낙진	남은희		
	창동2	조영철	이현진	주낙진	이현진		
	반동	조영철	조옥환	주낙진	김달수		
05	공릉	김동희	변성옥	홍기춘	한명자		
	중계1	김동희	박대남	홍기춘	김효진		
	중계2	김동희	오혜옥	홍기춘	조순희	김효순	
	중계3	김동희	최영애	홍기춘	김한진		
06	월계1	이상복	이영숙	이형란	김정순	김미애	
	월계2	이상복	유은실	이형란	문원정		
	하계1	이상복	이영숙	이형란	한영숙		
	하계2	이상복	김경애	이형란	이명재		
07	수유1	김종식	김재순	조순현	주명숙		
	수유2	김종식	임정순	조순현	권영심	최희순	
	미아1	김종식	함미자	조순현	김순단		
	미아2	김종식	정영태	조순현	김현아		

12 교육

교구장: 황의만 지 도: 양태선 부지도: 한영준
남간사: 이윤수 여간사: 정옥련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용두	강희창	이희자	임태원	김미경		
	청량리	강희창	이남숙	임태원	김명순		
	답십리	강희창	김정희	임태원	권경애		
	전호	강희창	윤현숙	임태원	최향숙		
02	이문	정재모	박영숙	김명성	박혜옥		

	목동	정재모	김소선	김명성	임나향		
	중화	정재모	김현미	김명성	박현원		
03	창안	양효민	김순곤	정재복	정옥련		
	상봉	양효민	이미재	정재복	김순란		
	신대	양효민	한 국	정재복	이계숙	신복임	
04	강동1	강만호	이규숙	이인용	박정인		
	강동2	강만호	신은소	이인용	조미란		
	길음	강만호	김설숙	이인용	박재경	김진자	
	돈암1	강만호	은팔레	이인용	손영숙		
	돈암2	강만호	신순순	이인용	이신남		
05	동소문	심화민	박숙자	송한성	박순례		
	한신	심화민	신인순	송한성	김정숙		
	삼선1	심화민	전진덕	송한성	장재복		
	삼선2	심화민	서계실	송한성	김귀례		
06	종암	노태경	이성옥	이용수	지영순		
	장위	노태경	김용배	이용수	박순옥		
	월곡	노태경	강석분	이용수	김희숙		

제 2 교구위원회

위원장: 임두현 지 도: 안한택
서 기: 정철길 회 계: 김태식

13 교육

교구장: 박상대 지 도: 류병복 부지도: 황순란
남간사: 이상배 여간사: 윤 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학동1	정운환	전성실	이왕진	김복현	박영미	
	학동2	정운환	박효지	이왕진	김영희B		
	관세청	정운환	김은숙	이왕진	박영자		
02	경복1	정찬용	최진희	이봉주	김유정		
	경복2	정찬용	문인란	이봉주	김영희A	김정순	
	이화1	정찬용	안경덕	이봉주	조태숙	장연순	
	이화2	정찬용	황정희	이봉주	원영주		
03	양지1	김철남	유복식	오동혁	김경희		
	양지2	김철남	최근준	오동혁	최근민	최명희	
	양지3	김철남	김순옥	오동혁	이인성		
	양지4	김철남	김성자	오동혁	강복희	서진희	
	공무원	김철남	유일옥	오동혁	김영자	안정민	
04	논현1	조종연	정순옥	최현규	김진희		
	논현2	조종연	곽노숙	최현규	윤보라	최희순	
	논현3	조종연	백영기	최현규	조순남	황명화	
	논현4	조종연	정복순	최현규	박옥자	김영애	
	논현5	조종연	권정자	최현규	김미연		
05	논현6	이상혜	노은숙	조윤성	손창순	최난영	
	논현7	이상혜	김순실	조윤성	김명순		
	논현8	이상혜	김경자	조윤성	고금진		
	논현9	이상혜	김진옥	조윤성	이숙자	김미라	
06	관리	이상혜	윤 순				

14 교육

교구장: 김기형 지 도: 김원수 부지도: 김정자
남간사: 김순환 여간사: 이미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잠원1	채홍표	전병자	강형규	이진주	고길순	
	잠원2	채홍표	홍화희	강형규	정영자	박신영	
02	잠원3	백종운	황유숙	조한주	마리나	김정옥	
	잠원4	백종운	이영숙	조한주	신관호	이 정	
03	우성	이희우	이금숙	선명환	임명희	김미덕	
	무지개	이희우	이금숙	선명환	남기숙	안도순	
	신동아	이희우	이창순	선명환	남준자	장득경	
04	삼호	류기명	황 향	김준환	황 향	윤정자	
	삼성1	류기명	이영숙	김준환	정순자	김인숙	

24계 교육 일문

05	삼성2	류기명	이상옥	김춘광	이미주	하지연	
	삼봉1	김진옥	조용기	정주식	강 준	최미룡	
	삼봉2	김진옥	조용기	정주식	유영자		
	삼봉3	김진옥	이종희	정주식	윤숙상	허인숙	
	삼봉4	김진옥	이종희	정주식	강정희	임신영	
06	서초1	권오준	박인자	권오준	홍정희	이유성	
	서초2	권오준	박인자	권오준	이수인	한상숙	
07	서초3	김종훈	이현숙	김종훈	권경애	이명숙	
	서초4	김종훈	이현숙	김종훈	권경애	조수임	
08	우면신원	최우근	전현신	안상익	서인숙	홍성숙	
	양재우성	최우근	차 희	안상익	전혜숙	박영숙	
09	양재1	임희준	홍재경	조성수	방신자	리혜은 이명희	
	양재2	임희준	성순출	조성수	백애순	김희희 최미현	

	이촌2	박성명	이경현	이선만	김세향		
	이촌3	박성명	장철자	이선만	박명란		
07	자하	박찬서	엄정자	안병택	이연숙	송광주	
	광창	박찬서	윤재선	안병택	변예선		
	해와정원	박찬서	원길자	안병택	김영자		
	창성	박찬서	신조자	안병택	최은희		
	송인	박찬서	박순옥	안병택	정영숙		

17 교육

교구장: 함철주 지 도: 유성택 부지도: 홍순애
남간사: 이선홍 여간사: 이성숙

15 교육

교구장: 이상석 지 도: 안창현 부지도: 임태주
남간사: 유형근 여간사: 주미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반포1	박원화	안금자	구성희	마현미	유준남	
	반포2	박원화	김석윤	구성희	김영은	구명남	
02	반포3	이병근	허종숙	강호원	김성숙	이명숙	
	반포4	이병근	유영순	강호원	이미경	전혜수	
	반포5	이병근	유영순	강호원	오지현	김경숙	
03	가든1	이홍기	구인숙	안유환	안숙영	윤숙자	
	가든2	이홍기	구인숙	안유환	조영만	김경례	
04	한양	문효식	박미순	서진원	이영순	이주영	
	서래	문효식	이은희	서진원	김하경	박장미	소태자
05	미도1	장철환	이순현	성 중	김재숙	박현숙	
	미도2	장철환	이순현	성 중	홍재자	신정순	
06	방배1	최민식	백자순	박삼성	오명자	김보희	
	방배2	최민식	이향선	박삼성	곽숙단	권순분	
07	방배3	유종석	이영연	권중철	강경순	노혜희	
	방배4	유종석	김옥순	권중철	김명선	기숙현	
	방배5	유종석	김옥순	권중철	김대옥	김경이	
08	방배6	박우현	조윤숙	나승은	신혜옥	최영숙	
	방배7	박우현	조윤숙	나승은	안순복	김미영	
09	방배8	이홍우	방규정	정진홍	김순애		
	방배9	이홍우	방규정	정진홍	전혜숙	전혜숙	전혜숙

16 교육

교구장: 석영식 지 도: 이재준 부지도: 김연식
남간사: 김봉화 여간사: 태명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인현	김종만	소길순	박진희	남숙자		
	오장	김종만	윤신자	박진희	이경자		
	평희	김종만	양명희	박진희	자아연		
	장충1	김종만	마정자	박진희	박무진		
02	장충2	김철환	태명자	박진희	윤수진		
	필동1	김철환	유숙자	박진희	권중희		
	필동2	김철환	안소현	박진희	김두연		
	필동3	김철환	이서륜	박진희	임영애		
03	신당1	장경수	김순옥	최승철	이선숙		
	신당2	장경수	심영순	최승철	조영미		
	신당3	장경수	한정옥	최승철	장신자		
04	남산타운1	정원근	장순자	김원기	정미숙	신정숙	
	남산타운2	정원근	권정희	김원기	김희영	이애경	
	남산타운3	정원근	이애영	김원기	이시은	황연숙	
05	이태원	양승환	조분자	김원기	배연식		
	한남	양승환	양영숙	김원기	이미희		
	보광	양승환	임정숙	김원기	표정자		
	청와	양승환	임정숙	김원기	전영진		
06	후암유신	박성명	문정숙	이선만	최영순		
	이촌1	박성명	김영숙	이선만	신은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독립문	조문수	이홍자	송병열	나영실		
	홍은	조문수	안정선	송병열	고희선		
	역촌	조문수	백옥신	송병열	도순애		
	신사	조문수	최순자	송병열	최은경		
02	북아현	김영목	변경희	김영춘	유영자		
	공덕	김영목	권순애	김영춘	심순덕		
	도화	김영목	한예현	김영춘	이신복		
03	서교	최경하	이상강	오무일	이소희		
	마포	최경하	김정희	오무일	고숙자	이금수	
	성산	최경하	윤경희	오무일	임신자		
04	연희	강창식	이달순	이상배	김경희		
	가회	강창식	박용순	이상배	백정숙		
	응암	강창식	박운옥	이상배	박혜경		
	중산	강창식	김경자	이상배	성경미		
05	행신1	남중호	최태옥	최주환	이순자		
	행신2	남중호	최태옥	최주환	서광옥		
	화정1	남중호	조영혜	최주환	양경숙		
	화정2	남중호	조영혜	최주환	김옥자		
	원당	남중호	김계순	최주환	한정숙		
06	마두	이성실	이진도	이성실	최금실		
	신길	이성실	이희실	이성실	최향숙		
	후곡	이성실	이자경	이성실	김정화		
	밤가시	이성실	최금숙	이성실	박복순		
	강선	이성실	양명자	이성실	이은숙	김순일	
07	문촌	이양선	김경혜	박한옥	신동미	김정혜	
	중산	이양선	박영림	박한옥	이영순		
	교하	이양선	김영희	박한옥	문현옥		
	금촌	이양선	김금례	박한옥	정정숙		
08	고양	김민희	이말본	류태준	이옥자		
	갈현1	김민희	김연희	류태준	김태금		
	갈현2	김민희	윤옥자	류태준	차미선		
	불광	김민희	남 희	류태준	남 희		

18 교육

교구장: 김태식 지 도: 이성진 부지도: 김정희
남간사: 김성현 여간사: 성지현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여의도	김영환	오하자	최남희	임미숙		
	문래	김영환	이형숙	최남희	안은미	이규자	
	당산	김영환	이숙희	최남희	김형미	최현주	
	양명	김영환	강순희	최남희	이혜숙		
02	신길	윤재균	강성자	안연식	박순복		
	대림1	윤재균	고진숙	안연식	김혜숙		
	대림2	윤재균	허은숙	안연식	전은실		
03	노량진1	이강진	조순림	함정무	이혜숙		
	노량진2	이강진	김부영	함정무	김학선		
	신대방1	이강진	전정자	함정무	김영은		
	신대방2	이강진	김옥자	함정무	양영숙		
04	흑석1	김기태	안은희	이정신	남정숙		
	흑석2	김기태	김정숙	이정신	김영숙		
	상도1	김기태	최현자	이정신	김동순		

	상도2	김기태	신소자	이정신	최명수		
	상도3	김기태	김영란	이정신	이용표		
05	신당1	김홍렬	이정희	염광호	이유자		
	신당2	김홍렬	김옥남	염광호	김연향		
	신당3	김홍렬	김선자	염광호	김명희		
	신당4	김홍렬	김선자	염광호	최은희		
06	신당5	최홍섭	성지현	정우성	송순옥		
	신당6	최홍섭	조영숙	정우성	김정숙		
	신당7	최홍섭	조영숙	정우성	김영옥		
	신당8	최홍섭	서경자	정우성	김옥자		

19 교육

교구장: 노영환 지 도: 유현철 부지도: 전영희
남간사: 임종영 여간사: 박남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신림1	박종태	표복심	박형식	이명희		
	신림2	박종태	나정순	박형식	최명영		
	신림3	박종태	김옥순	박형식	김영실		
	신림4	박종태	김향자	박형식	정경진		
	신림5	박종태	박민희	박형식	이인숙		
02	신림6	김종춘	김남식	임종영	한인숙		
	봉천1	김종춘	이정임	임종영	김경이		
	봉천2	김종춘	박선자	임종영	정경애		
	봉천3	김종춘	전옥순	임종영	김유옥		
03	관악드림	유승렬	황유남	백상일	강 순		
	봉산동아	유승렬	서해경	백상일	박정애		
	관악현대	유승렬	김태숙	백상일	최순금		
	봉천4	유승렬	임선영	백상일	조숙애		
04	봉천5	최진성	박광자	신덕길	오형심		
	봉천6	최진성	정환실	신덕길	이명주		
	봉천7	최진성	박남희	신덕길	이수애		
	봉천8	최진성	김종열	신덕길	김정숙		
	남현	최진성	어수덕	신덕길	김혜성		
05	가산	안준모	김춘자	박현오	전숙영		
	독산1	안준모	김춘자	박현오	전숙영		
	독산2	안준모	전복실	박현오	김재정		
	시흥1	안준모	이인숙	박현오	김형옥		
	시흥2	안준모	김영숙	박현오	김남순		

20 교육

교구장: 신상수 지 도: 황진섭 부지도: 김덕필
남간사: 이근호 여간사: 박귀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목1	박종윤	양영애	강단수	한연숙		
	목2	박종윤	최화자	강단수	박귀숙		
	목3	박종윤	김병희	강단수	한정희		
	목4	박종윤	박익식	강단수	김정희	이혜숙	
02	구로1	이정택	김한숙	김일성	윤하순		이혜자
	구로2	이정택	이문구	김일성	이남이		
	신도림	이정택	김경애	김일성	김재윤		
	고척	이정택	손순자	김일성	이성옥		
03	신정1	김수연	김영연	이상남	박정희		
	신정2	김수연	박현숙	이상남	김명미	김희선	
	화곡1	김수연	안숙자	이상남	안숙자		
04	신월	강석화	박희숙	정 준	양명자		
	개봉1	강석화	이영애	정 준	송혜숙	최순복	
	개봉2	강석화	김자경	정 준	이혜자		
	우류	강석화	권필순	정 준	박명희		
05	등촌1	권영주	서귀수	김종민	이명숙		
	화곡2	권영주	김덕숙	김종민	손유미		
	화곡3	권영주	이유기	김종민	이은숙		
	영랑	권영주	정정숙	김종민	전인숙		
06	등촌2	강신현	김경자	배관용	김정순		

24개 교육 일문

기양	강신철	이영자	배관용	김정엽
방화1	강신철	정영혜	배관용	이정옥
방화2	강신철	정영혜	배관용	정미자

21 교구

교구장: 정철길 지 도: 최충철 부지도: 이복순A

남간사: 임연수 여간사: 박숙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김포1	이영식	장용숙	조운준	황민자		
	김포2	이영식	양승남	조운준	김희자		
	김포3	이영식	양승남	조운준	신성미		
	김포4	이영식	신정순	조운준	정영희		
02	신곡	임채봉	홍문숙	김나홍	배영순		
	역곡1	임채봉	김춘지	김나홍	김경숙		
	역곡2	임채봉	박숙희	김나홍	전진영		
	중동	임채봉	이춘일	김나홍	손진숙		
03	상동	장철규	최영순	김동식	김금숙		
	원미	장철규	조윤철	김동식	송경숙		
	고강	장철규	김영민	김동식	강금자		
	원흥	장철규	고영진	김동식	함진옥		
04	작전	박명근	임원식	양계곤	노명순		
	계산	박명근	지인숙	양계곤	김영희		
	산곡	박명근	박영순	양계곤	정금순		
	부평	박명근	은영선	양계곤	박연자		
05	가좌	양승복	이정순	최창하	서덕순		
	만수	양승복	이해수	최창하	김경순		
	구월	양승복	정성자	최창하	함명순		
	인현	양승복	정순옥	최창하	이정수		
06	정왕	유병수	박성남	남명진	한순애		
	광명	유병수	문영남	남명진	양미자		
	하안	유병수	최옥숙	남명진	최옥숙		
	철산	유병수	이경호	남명진	이경호		

22 교구

교구장: 임무천 지 도: 정홍신 부지도: 강영미

남간사: 이기숙 여간사: 유정선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파천1	김성수	권종순	임우도	김영숙		
	파천2	김성수	조향순	임우도	유화자		홍성희
	관양1	김성수	진경애	임우도	진경애		
	관양2	김성수	현경남	임우도	현경남		
02	비산	현준봉	이경자	구창희	김승희		
	호계	현준봉	홍영자	구창희	유향란		
	박달석수	현준봉	김종녀	구창희	임미희		
	안양	현준봉	최계순	구창희	이정덕		
03	평촌1	윤상철	박혜순	김병권	김성자		
	평촌2	윤상철	윤인숙	김병권	황윤희		
	평촌3	윤상철	남상민	김병권	유기진		
	평촌4	윤상철	변금순	김병권	박홍란		
04	평촌5	홍원식	한동원	신희실	강수연		
	의왕1	홍원식	허연옥	신희실	허연옥		
	의왕2	홍원식	김숙자	신희실	임진숙		
	당동	홍원식	한금배	신희실	장혜남		
05	산본1	안성영	김성희	성대열	이정화		
	산본2	안성영	김현순	성대열	장인실		
	산본3	안성영	조유수	성대열	양미정		
	산본4	안성영	유정선	성대열	이정연		
06	수원1	윤명범	정경례	이호식	김동화		
	수원2	윤명범	정경례	이호식	이소숙		
	수원3	윤명범	김동규	이호식	조순혜		
	수원4	윤명범	김연단	이호식	장인복		
	수원5	윤명범	한숙정	이호식	한숙정		
07	화성	이상범	박남분	김열환	이행숙		

오산	이상범	박신준	김열환	임홍숙
평택안성	이상범	윤정미	김열환	김수진
천안	이상범	김주분	김열환	김주분
08	안산1	김재호	최정자	정승진
	안산2	김재호	김옥희	정승진
	안산3	김재호	손신래	정승진
	안산4	김재호	천태숙	정승진

23 교구

교구장: 김연근 지 도: 부지도: 한성임

남간사: 김동만 여간사: 김옥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태평	조종광	김지순	배만수	최성자		
	신흥동	조종광	최명호	배만수	김영주		
	신흥중	조종광	조유주	배만수	허정숙		박현숙
	은행	조종광	고효영	배만수	고옥영		이미정
	성남	조종광	최양숙	배만수	임창순		
02	상하대원	유재훈	진명화	김재경	이만순		
	장미	유재훈	김미자	김재경	황은미		김정순 김혜진
	경남	유재훈	최낙희	김재경	강옥희		
	배화	유재훈	정은애	김재경	정은혜		최서자
03	이매1	이호일	장신자	장정원	최경숙		
	이매2	이호일	김연수	장정원	우영희		전미리
	서현	이호일	송영복	장정원	봉경숙		
04	아름1	박규연	김정원	박노의	박재경		정은자
	아름2	박규연	김영연	박노의	최학림		
	아름3	박규연	김현수	박노의	이순옥		양혜영
05	효자	김만중	나순희	배현수	김순자		
	장안	김만중	이옥순	배현수	심세자		
	샬별	김만중	장정숙	배현수	이경숙		
	수내	김만중	최영희	배현수	김영희		이미영
06	양지	한홍연	신진숙	한관우	현명희		
	경동	한홍연	배은경	한관우	윤영아		
	정기1	한홍연	안숙자	한관우	조혜경		신서운
	정기2	한홍연	이정숙	한관우	김순이		최효삼
	정기3	한홍연	박철순	한관우	김광혜		
07	창출	현순조	곽기영	최용익	이영자		곽진희
	까지	현순조	유기순	최용익	양은혜		
	하안	현순조	김영남	최용익	명신덕		
	구미	현순조	안숙자	최용익	장보희		
	무지개	현순조	김숙자	최용익	김영희		

24 교구

교구장: 진학래 지 도: 최성규 부지도: 안태순

남간사: 정재엽 여간사: 남계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죽전1	정운출	남정애	조성훈	지정민		
	죽전2	정운출	고운태	조성훈	김경순		
	죽전3	정운출	양승자	조성훈	김종란		
	꽃매1	정운출	염경자	조성훈	이순자		
	꽃매2	정운출	이상희	조성훈	남명숙		
02	동아	김홍기	강정희	강태영	채은실		
	언남1	김홍기	최영자	강태영	이연화		
	언남2	김홍기	유호순	강태영	전명식		
	언남3	김홍기	한영덕	강태영	최신자		
	마복1	김홍기	차창숙	강태영	김신영		
03	마복2	한만교	정혜진	이광원	양순자		김옥자
	연원1	한만교	방소애	이광원			
	연원2	한만교	전경미	이광원	박금란		
	녹원	한만교	최영덕	이광원	김현화		
04	동백1	신중식	최이수	이인원	고미숙		
	동백2	신중식	한정희	이인원	이상아		
	보라	신중식	김정숙	이인원	이성희		

영덕	신중식	김금순	이인원	안정숙
05	신갈1	김원호	황인숙	여영호
	신갈2	김원호	전유강	여영호
	구갈	김원호	윤춘식	여영호
	용인1	김원호	박숙경	여영호
	용인2	김원호	구영희	여영호
06	통천	이달옥	변옥희	김홍식
	수지1	이달옥	정경희	김홍식
	수지2	이달옥	홍현기	김홍식
	진산	이달옥	정현자	김홍식
07	송화1	박재현	고경숙	백순환
	송화2	박재현	신옥자	백순환
	만현1	박재현	강영자	백순환
	만현2	박재현	하민자	백순환
	만현3	박재현	유재순	백순환
08	신정1	정금수	이인숙	김재숙
	신정2	정금수	박영자	김재숙
	신봉1	정금수	김봉숙	김재숙
	신봉2	정금수	김정순	김재숙
	신봉3	정금수	허순자	김재숙
09	금호1	강두형	최 규	김성진
	금호2	강두형	김필숙	김성진
	성북1	강두형	김외숙	김성진
	성북2	강두형	조혜순	김성진
	성북3	강두형	정금순	김성진
10	단독세대	장재영	남계순	

특별 교구 (사랑부·애바다부·외선부 단독세대)

교구장: 김종진 지 도: 이용진

제1교육위원회

영아부 지도: 이옥주
유아부 지도: 이복순B
유치부 지도: 김정연
유년부 지도: 강명구
초등부 지도: 유현철
소년부 지도: 이상택
중등1부 지도: 양태선
중등2부 지도: 전성원
중등3부 지도: 이재영
영양총대별 지도: 김정순

제2교육위원회

고등부 지도: 박정현 부지도: 강영미, 천영희, 황순란
대학부 지도: 정진호 부지도: 류진희
청년1부 지도: 김철규
청년2부 지도: 최성득 부지도: 한영준, 강호숙

제3교육위원회

장년1부 지도: 김익환
장년2부 지도: 이희식
장년3부 지도: 임현덕
소망부 지도: 하종철 부지도: 최문실, 권은희, 김정자, 김경희, 한성임
시랑부 지도: 최성규 부지도: 김연식, 임태주, 옥미자
애바다부 지도: 박만기 부지도: 이혜숙
탁아부 지도: 강덕림
사족동원부 지도: 김달자
사족감독부 지도: 유재진 부지도: 이복순A

외선부 부지도: 안태순

새가족양육부 4월 수료자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 우연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 안 하고 1년 동안 다니다가 새가족양육부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과 교제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지켜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믿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경연)

♥ 부모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가족 간에 가족애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좀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배성준)

♥ 예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평정을 얻으면서 봉사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방일홍)

♥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회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인내를 해 주신 집사님이 최극영강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재물로 받으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마음이 편해서 사함과 믿을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민선)

나를 전도한 아들



교회에 오기 전까지 나는 많은 갈등 속에 허우적거렸다. 지난 세월 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했던 나의 신념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바꾸는 작업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40년을 살았으면 충분히 지라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매사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해왔다. 나에게 신은 절대 없었다. 누구

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미워했다. 단 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아들만 빼고! 그런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해 보낸 심부름꾼은 나의 아들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아들이 교회에 다니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뒤부터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 심지어 작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정말로 기적이라 할 만큼 병들 때까지 지냈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였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는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부활을 들어주기 위해 마지막에 내민 발걸음이 한 번,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또 쉬었다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좋은 일 있느냐?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달라졌다. 사랑을 알았는데!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유일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단 한 사람, 나의 아들을 통해 아들이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 딸과 사위가 권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김희건)

♥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졌고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윤선악)

♥ 예수님은 저희에게 참사랑과 믿음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서석교)

♥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정경문)

♥ 새벽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넓어진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동주)

♥ 결혼과 동시에 장년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주일을 지키며 이전보다 부지런해졌습니다. (오옥자)

♥ 큰아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온 가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가족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임무근)

♥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하고 제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 예수님은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보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온이 있어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옥순)

(편진국)

사랑의 섬김과 기도

지나온 나의 봉사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진정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생각하니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인'이라는 말씀 앞에 겸손한 척하였습니다. 머리를 틀 수 없을 정도로 참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였는가?' 그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가? 생각할 때 나의 지기된 위선 앞에서 하나님과 탁아부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후염으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새끼를 보급하게 되는 물들을 자주 있어버리게 되면서 아이들 앞에서 서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서기를 은근히 즐기던 나였기에 그 자리를 내어주기가 싫은 속마음을 토한 속결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탁아부의 체제가 바뀌게 되어 젊은 선생님들을 앞에 진행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일을 맡게 되면서 한 동안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갔다고 혼자서 빛나려 할 때는 무척 힘들고 마음 아팠지만 다른 이들을 빛나게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였음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선생님들의 웃음소리,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붙잡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소리, 흑시리보다 더러운 곳이 있을까 구석 구석 훑고 닦는 소리,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왔다 갔다 하시는 선생님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 그리고 숨어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소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탁아부의 귀한 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날도 '예수님 도와 주세요, 자기부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빛나게 하도록 숨어서 봉사하는 제가 되도록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을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학년 소망 4반 임수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서 땅방울이 피
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
죠? 예수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해주신걸 믿습
니다. 썸만찬식때 제자들에게 떡과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
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을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후
저희에게 항상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
수님의 이룩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것을
친구들에게 전하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수진이가 될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제목: 빈 무덤



이규리(유년부)

김지원(교사, 초등부)

예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믿음

사라졌는가 싶더니 어느새 외자 밑에서 키득거리는 녀석까지, 정작 기도하고 있는 아이는 한두 명뿐입니다. 저희 반 장난꾸러기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맞았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부드럽게 달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떠올려보고 있노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또 저의 부족함이 고스란히 제 앞에 놓이곤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사랑 1반을 맞았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습까지 해 오는 성실한 아이들과 분반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를 주었던 아이들. 그러나 이번엔

“애들이 기도하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 보면 엎드려 있는 한 녀석과, 소곤거리는 두 녀석. 눈앞에서

많은 믿음 6반 아이들은 개성도, 활발함도, 장난기도 작던 아이들보다 두 배는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 능력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맘 고생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 드리는 동안 예수님은 제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또한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제 뜻대로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떠올리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 1반도 믿을 6반도 모두 예수님이 하라하신 매우 귀한 반이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하라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때 저는 마음 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닮은 마음을 하라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떠 보면 너무나도 해맑은 아이들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기도하지!”

황윤하(교사, 소년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모태 신앙인으로서, 늘 의무감과 습관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던 저는, 고통투를 마치고 별 다른 생각없이 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사할 부서를 찾으면서 다른 부서도 많았지만 초등부 교사로 지원한 데에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었지만 솔직히 ‘초등부 아이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어서 특별한 성경 지식이나 준비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빈집대기뿐이었던 저의 신앙은 대박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에 휘말려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적은 믿음조차 세상과 타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탓이었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처음 반 아이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저를 치장한 채 거뒀던 말과 행실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 자신의 잣대에 따라 아이들의 삶을 정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씩의 방법으로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에 한계를 느낀 저는 새롭게 반을 편성하는 시점에 교사를 그만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로 퇴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2007년도 반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 저의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과정들이 단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돌아온 땅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주는 잠깐 동인의 쾌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의 기쁨과 은혜가 더 귀하고 가치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저의 가난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대학부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3년 동안의 방황으로 장기결석자로 되어 있던 제가 대학부에 나갈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로 부족한 저를 대학부 조장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저를 기다리신 주님께 감사했고 제 교만한 심령을 회개하고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인도하시도록 저를 내어드리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초등부의 교사와 대학부의 조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순간마다 저의 자존심과 의지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저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교회탐방 재정위원회(회계부)

주님께 드린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재정위원회 회계부의 일꾼들이 있다.

"주님께 드려진 헌금을 다루는 일이기에 더욱 기도와 예수님만 바라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재정위원회의 회계부?

7명의 장로와 43명의 남·여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헌금별로 구분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김은정 장로)

각각의 봉사자들은 1~5부 예배 시간을 전하여 2개의 주일 예배의 헌금 수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계식 장로)

매주일 오전 8시 경건회를 시작으로 모든 헌금수납사업이 시작됩니다. (김광남 장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물품을 절약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김병의 권사)

성도님들께 드리는 당부가 있다면? .

저의 봉사자들은 은총과 진언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봉사는 일에 신념을 쓰다 보면 수납창구를 찾아다니는 성도님들께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 오히려 아지 마십시오. (최상기 안수집사)

모든 헌금은 기증 및 전산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헌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계식 장로)

헌금을 내실 때 이름은 물론이고 반드시 교적번호와 헌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자 권사)

수표로 내실 때에는 뒷면에 교적번호를 써 주시고 지폐일 경우에는 큰개 피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의 권사)

기금 한 통통마다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한꺼번에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니다. 이렇게 되면 동동이 생길 수 있으니 각각의 봉투를 사용에 주십시오. (전옥순 권사)

가능하다면 헌금봉투를 통해 주시고, 액수가 많을 때는 직접 헌금 수납창구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임경순 집사)

기도 제목은?

헌금을 계속하는 일에 조금의 실수도 생기기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김병의 권사)

약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매순간 경성하여 주님께 영감을 받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계식 장로)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옥순 권사)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은정 장로)

직접 맡은 일에 맡겨 주신 것이 귀한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주소서. (이혜자 권사)

오직 제가 먼저 사역에 동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곳이 우리 보람에 가득한 은혜의 발전소가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김광남 장로)

회계부 사무실 이곳 저곳에 설치된 감사카메라와 봉사자들의 진지한 표정을 처음 대할 때, 이들이 무척이나 간절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들이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은 대단하였다. 정말 이들이 봉사하면서 풍미하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은 감동적이다. 회계부의 봉사자들은 헌금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금 속에 깊은 심자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살피는 ...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듯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전 1:7)

(편진국)

회계부에서의 사역은?

사실 돈을 다루는 일이라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 전날부터 기도해 준비합니다. (이혜자 권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중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헌금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김병의 권사)

저처럼 형편없는 장기로는 미처럼 귀한 일에 사용하느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옥순 권사)

은사 간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같은 영적의 긴장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최상기 안수집사)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는?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액수가 적어 부끄러워 하신데 실제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어떤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저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전옥순 권사)

혹시 봉사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최상기 안수집사)

저는 신교헌금 담당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부끄러워 내시는 헌금이 오자면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상이 놀라워 뿐입니다. (이혜자 권사)

어떤 분들은 헌금봉투를 절약하시겠다며 헌금을 직접 수납창구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거룩하시다 (C.F. Gounod 작곡)

〈요 거룩한 밤〉 〈거룩한 성〉 〈할렐루야〉 〈주기도〉 〈종려나무〉 〈생명의 양식〉 등은 여간해서 부르기 힘든 찬양곡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 그리고 이제 금요 찬양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고 있다. 〈거룩하시다, Sanctus〉라는 찬양은 주로 성령강림절에 연주하며 부른다. 먼저 주제를 연주하는 전주에 이어서 테너의 독창이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주, 온 누리에 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합창의 코랄(choral)적인 움직임의 배후에서 오케스트라가 주제를 아름답게 연주한다. 또 다시 테너가 확신에 찬 소리로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합창으로 두 개의 독창의 주제를 전개한다. 이처럼 위대한 영광의 소산인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의 전능과 창조에 대한 찬미가이다. 곡이 고조어 이를 때 최후의 심판의 트럼본이 울려 퍼져 곡의 절정에 이르는데, 이것은 〈사도신경, Credo〉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하프의 소리와 함께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하겠다.

〈거룩하시다〉는 구노(Gounod)가 작곡하였다. 장장 5년간의 신학공부 기간 동안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고 모든 공부를 마친 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이곡을 작곡하였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독창에 혼성 합창, 하프, 오르간을 동반한 관현악으로 편성된 이 작품(전 6곡)은 세련미와 화려한 품격 속에 서정적 선율이 특징을 이룬다. 구노 자신은 이 곡의 창작 과정에서 "음악으로써 끝없는 신앙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더구나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주를 찬양하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특히 구노는 오베라 작곡가였지만 이 곡에 있어서는 화려하고 표적인 극적 효과를 피하고 고전적인 자제와 경건한 신앙적 내면을 음의 색채와 감각적인 소리로 표현하였다. 감히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자. "거룩하신 주 하나님, 호산나 높은 곳에 아멘."

(찬양위원회)

새 가 득 을 찬 양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703	이운진	22	소양부	김영애(20)	722	김석파	24	대학부	이정희(18)						
704	문정희	14	대학부	강희영(23)	723	박정일	14	전남3부	권은영(15)						
705	김진아	3	청년1부		724	김진원	17	에버다부	주영희(15)						
706	박진희	22	청년1부	김진옥(14)	725	정영숙	17	소양부	박민애(17)						
707	김종수	18	에버다부	김병관(20)	726	서정원	17	소양부							
708	명성희	16	청년1부	이영선(4)	727	전정환	20	청년2부	김현근(6)						
709	류영진	12	청년2부	주용규(19)	728	문영실	11	청년1부	김영희(11)						
710	이영숙	3	청년1부	박영재(13)	729	도우미	9	중동3부	도우미(4)						
711	김정숙	17	청년3부	박용순(17)	730	장영민	15	청년2부	정은숙(21)						
712	박희영	13	청년1부	홍준도(11)	731	장우진	12	대학부	이서영(6)						
713	손혜리	11	청년2부	박재순(11)	732	배준주	19	청년1부	김성수						
714	조한나	2	청년1부		733	박동현	3	청년1부	김지우(4)						
715	김정희	4	대학부	한은숙(4)	734	이선아	11	대학부	오영순(11)						
716	김은환	20	청년1부	김유순(24)	735	호수환	19	청년1부	정진원(19)						
717	박혜련	20	청년2부	서지희(24)	736	최영민	6	청년1부	김윤지(4)						
718	이미지	6	청년2부	김동희(22)	737	류유선	17	청년2부	김영희(17)						
719	송충광	15	청년2부		738	김희용	외선부	조현영(6)							
720	오성민	3	청년1부	윤일영(2)	739	서수진	6	고동부	이혜련(7)						
721	이상순	1	고동부	문영숙(4)	740	최혜미	6	전남2부	이진규(9)						

* 찬양위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득 등록번호 오시기 바랍니다.*

